



기독교 직장인

2026년 봄호 통권 323호





기독교 직장인

2026년 봄호 통권 323호



표지설명

겨울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봄은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꽃은 소리를 내지 않고 필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준비된 생명이 때가 되어 조용히 드러날 뿐입니다. 신앙의 꽃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며 키워 오신 사랑의 표지입니다.

03 목상글

- 사목일기** 04 서로의 짐을 지고 건너는 국경 김명중 시문
- 28 '두쫌쿠'를 아시나요? 김도훈 라파엘
- 38 질문이 기도가 될 때 강혁준 아우구스티노

- 가톨릭이야기** 08 성심당의 시작 김미진 아녜스
- 수도회이야기** 11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전성심 마리아 헬레나
- wyd 소식** 14 태국 상징물 순례 동행기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 교리 산책** 18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조한규 베네딕토
- 병원단상** 30 멈추어서야 보이는 소중한 것 김요한 세레자 요한
- 교정단상** 34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 송정섭 시문

- 나의 일터, 나의 신앙** 22 어린 시절의 동경은 비로소 나의 신앙이 되었다 조서연 마리아
- 50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박민정 아녜스

- 복음 묵상** 26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루카 22, 48) 김중호 야고보
- 53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 21) 김중호 야고보

- 직장인 성지 Guide** 20 단내 성지 윤정민 마틸다
- 36 어농성지 윤정민 마틸다
- 해외 성지 Guide** 42 루르드 심연선 소화테레사
- 56 틀린그림 찾기
- 58 News & Views

“
그리스도께 묶인 자는
참으로 자유롭고,
자기 자신에게 묶인 자는
참으로 노예입니다.
”

Augustinus

In Evangelium Joannis Tractatus 41,10

서로의 짐을 지고 건너는 국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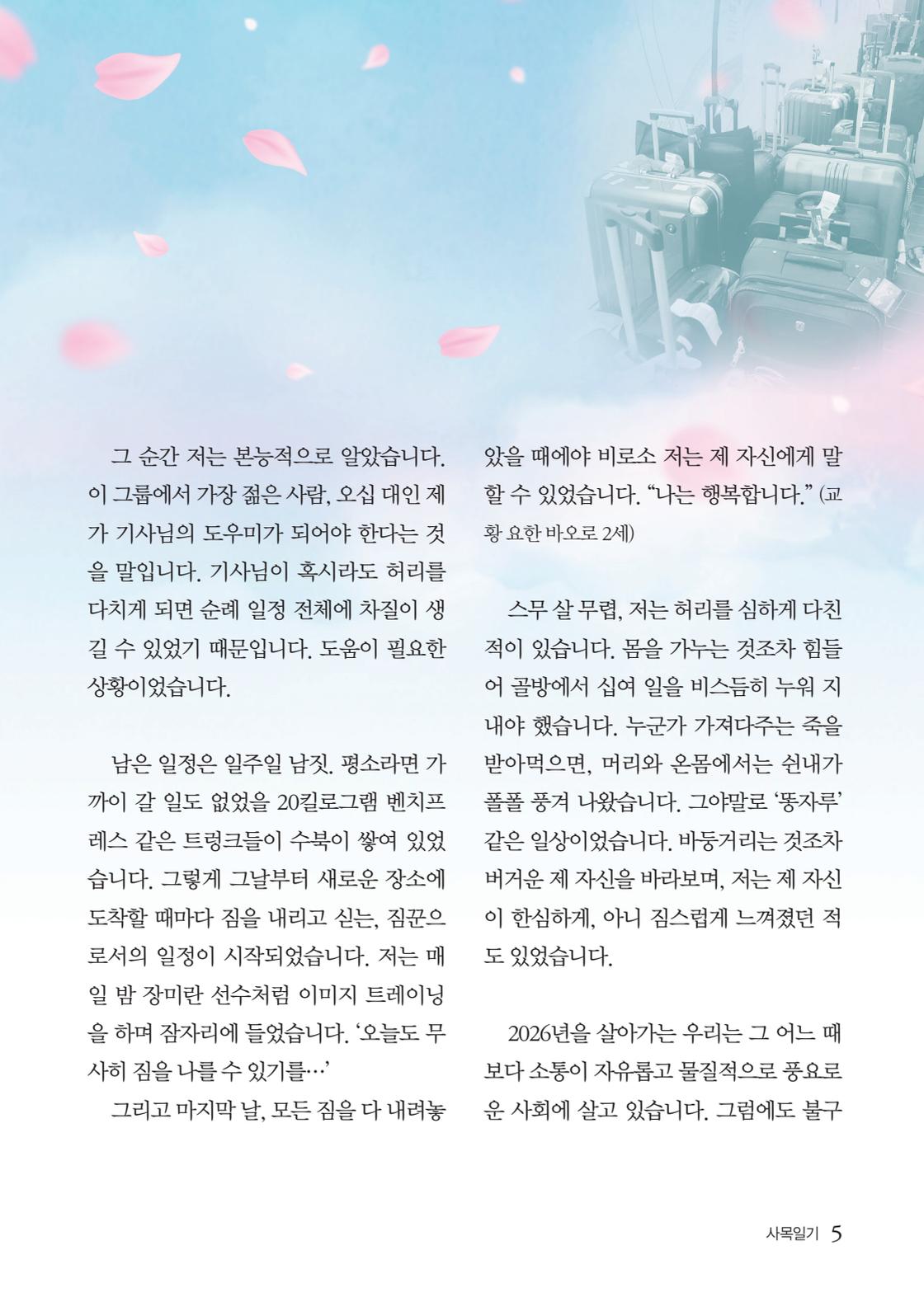
김명중 시문 신부_사목국 직장사목팀



언젠가 유럽의 한 지역을 순례하던 중, 국경을 넘어가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순례객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저는 트렁크를 실을 버스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식당 앞에는 60인승 대형버스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지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기사분은 보이지 않았고, 버스 옆에는 한 소녀만이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십여 분을 두리번거리며 기다리다 몇 차례 눈이 마주친 끝에, 저는 머뭇거리며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버스 기사님 혹시 보셨나요?” 그러자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버스 기사입니다.”

눈앞에는 먼 타국에서 버스를 몰고 국경을 넘어온 동유럽의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체구에 비해 나이는 실제보다 더 많았습니다.) 순간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제 뒤에는 23킬로그램이 넘는 트렁크들이 무려 마흔 개 넘게 줄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할 틈도 없이 저는 다른 형제님들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아도 서 계신 것 자체가 신기할 만큼 연로하신 두 분의 할아버지들이 계셨고, 그나마 가장 젊으신 예순의 형제님은 탈장으로 힘쓰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그룹에서 가장 젊은 사람, 오십 대인 제가 기사님의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사님이 혹시라도 허리를 다치게 되면 순례 일정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일정은 일주일 남짓. 평소라면 가까이 갈 일도 없었을 20킬로그램 벤치프레스 같은 트렁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새로운 장소에 도착할 때마다 짐을 내리고 신는, 짐꾼으로서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장미란 선수처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짐을 나를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짐을 다 내려놓

았을 때에야 비로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스무 살 무렵, 저는 허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어 골방에서 십여 일을 비스듬히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누군가 가져다주는 죽을 받아먹으면, 머리와 온몸에서는 쇠내가 폴폴 풍겨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똥자루’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바둥거리는 것조차 버거운 제 자신을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아니 짐스럽게 느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자유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은 채 더 고립되고, 더 외롭고, 더 힘겨운 하루를 보내는 이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SNS에 매몰된 채 '정신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느 날, 수십 개의 얼굴을 보았지만 단 한 명과도 제대로 눈을 맞추지 못한 채 하루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히키코모리 현상은 이제 한국에서도 젊은이와 노인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살률 1위의 나라 대한민국. 스스로를 짐스러운 존재라 여기며 생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살아 있는 것조차 용기가 될 때가 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며 살아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존의 방식이자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생의 명예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이웃이지만, 삶에 허덕이며 일어서기를 주저하는 이들의 존재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고(故) 장영희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문학을 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잠시 침묵하던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언어로,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의 소명을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분명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기에 어떤 이는 빵을 굽

고, 어떤 이는 버스를 운전하며, 어떤 이는 환자를 돌봅니다. 어떤 이는 물건을 배달하고, 어떤 이는 길을 안내하며, 어떤 이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존재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 어떤 이는 사죄경을 읊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짊어지고 싶어 나르는 이들의 사제적 소명 또한 그렇게 계속됩니다.

이렇듯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꺼이 누군가의 존재를 나누어 짊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분께 다가갑니다.

존재를 나누어 지는 일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손에 들린 김밥 한 줄, 운동화 한 켤레, 목도리 하나, 장난감 하나는 결코 가볍지 않은 희망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살이입니까. 이 얼마나

창조주께서 바라셨던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까. 주님의 나라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건너야 할 국경은 지도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를 내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고통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의미를 붙잡기조차 힘겨운 날들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럴 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느님 앞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존재의 무게를 지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용기입니다. ⊕

성심당의 시작

주어라 받을 것이다(루카 6, 38)

김미진 아네스_성심당

1956년, 대전역 앞 천막 찜빵집으로 시작한 성심당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돌이켜 보니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이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성심당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70주년을 맞으며 창업주 때부터 이어온 사랑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업주故임길순 암브로시오는 고향인 함주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던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전후해 북녘 땅에는 공산정권에 의한 종교 탄압이 거세졌고,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0년, 남쪽으로 향하기 위해



대전역앞 찜빵집



▲ 창업주 부부(고, 임길순 암브로시오, 한순덕 말가리다)
 ◀ 1967년 초창기 (대흥동성당 앞, 현, 케이부띠끄)

가족들과 함께 흥남부두에 도착한 그는 수많은 피난민들로 이수라장이 된 그곳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천주교 신자임을 증명하는 것 발을 들고 천신만고 끝에 남쪽으로 가는 마지막 배 메리디스 빅토리호(Meredith Victory)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메리디스 빅토리호는 원래 항공유를 수송하던 민간 화물선으로, 정원이 60명에 불과한 배였습니다. 그러나 선장 레너드 라루(Leonard LaRue)는 부두를 가득 메운 피난민들을 보고 모든 화물을 폭파하고, 배를 개조하여 피난민 1만4천여 명을 태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배 위에서 창업주는 “내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남은 인생은 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하느님께 올렸고 그 기도는 훗날 성심당 나눔 정신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거제 장승포항에 도착해 성당 교우들의 도움으로 교우들의 집에 머물며 생계를 이어갔고, 일자리를 찾아 진해로 옮겨가 냉면가게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재 성심당 대표이자 저의 남편인 임영진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정착을 꿈꾸며 삶의 터전을 일구고자 했지만, 냉면의 주재료인 감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게 운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가족을 위해 보다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찾아야 했던 그는 온 가족과 함께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기차 고장으로 대전에 기차가 멈춰섰고, 기약 없는 기다림 끝에 대전에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대전 대흥동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기선 요셉 신부님을 만나 미국에서 원



김미진 아네스는

1982년, 임영진 요셉과 결혼하여
 성심당을 함께 경영하고 있습니다.
 성심당의 브랜딩, 홍보기획, 디자인, 빵 작명,
 인테리어 기타등등 빵 만드는 일 빼고
 모든 것을 다하는 **성심당 빵마담**입니다.

조한 밀가루 두 포대를 받았습니다. 창업주 부부(故임길순 암브로시오와 故한순덕 말가리타)는 이 밀가루로 찰빵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소 예수성심에 대한 특별히 신심이 두터웠던 암브로시오는 대전역 앞에 천막을 치고 나무판에 성심당(聖心堂)이라는 간판을 걸고 찰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직 후 대전역 앞에는 전쟁고아와 가난한 이들이 많았는데, 당신의 가족도 살기 어려웠지만 하느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빵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70년 동안 이어지는 빵나눔은 자녀들은 물론 성심당 직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나눔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창업주는 “주어라, 받을 것이다”(루카 6, 38)라는 복음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였으며, 갓 시집온 저에게 “주님은 우리가 내어준 것을 복리이자로 주신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

공동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길

전성심 마리아 헬레나 수녀_스승예수의 제자 수녀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속도를 기다려주며,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속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매일 선택하며 우리의 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새벽 5시, 주님을 찬미하라는 부르심이 어둠을 깨워 하나 둘 성당으로 모여듭니다. 제각기 다른 음색을 지녔으나 한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려는 우리들의 새 날은 분명 어제의 날들에 죽고, 새롭게 마련된 하루를 잘 살아가기 위해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게 합니다. 어제보다 는 더 하느님을,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리라는 다짐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낮익은 일상을 영글어 가는 우리는 스승
예수의제자수녀회 수녀들로서 복자 야고
보 알베리오네 사제의 기도로 태어나 감
실 앞에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
도록 불리움 받았습니다.

‘제자’라는 이름에 더해 마리아와 바오
로를 삶의 모델로 삼아 길, 진리, 생명이
신 스승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침묵
과 고요, 소소한 일상의 소음들이 한데 어
우러진 자리에서 늘어놓자면 제법 다양한
소임 안에서 크게 성체, 전례, 사제적 사도
직이라는 소명 아래 충만한 하루를 봉헌

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부르
심의 여정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고, 어
리석어 보이는 이들의 무리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참된 아름다움이신 성체를 바라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느님 앞에 멈춰서 그
분의 마음을 닦기 위해 뜻을 같이하고 삶
을 유연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분께
서 우리의 걸음에 속도를 맞춰 주시듯 하
느님의 이해와 받아들임이 우리 공동체
를 성장시켜 주시길 지향하며, 서로의 여
정을 기다려주고 함께 걷는 일이 곧 은총
의 표징임을, 지금 여기서만 배려될 수 있
는 하느님의 마음임을 배우며, 언제 끝날
지 모를 이 삶의 여정을 조심스럽게 걸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위령성월의 따뜻했던 어느 날, 함
께 웃고 기도하며 삶을 나누던 선배 수녀
님께서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
여주고 하느님 품으로 되돌아가셨습니
다. 반생을 조금 넘긴 짧은 여정을 걸은 수





여님은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기를 바라며 육의 고통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수녀님의 여정의 마침을 바라보며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그 죽음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지 한 해의 시작에서 삶의 마지막을 다시금 묵상해 봅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종착지가 하늘나라임을 아는 이들은 오늘의 만남과 관계 하나하나를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 어디서에서든지 공동체를 이루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의 걸음을 이해하며 믿는 이들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지금과 내일은 이미 하느님 안에서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직장인 여러분, 하느님 안에서 시작한 이 걸음이 다시 하느님 안에서 평화로이 이어지기를 새해에도 서로의 걸음을 존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사랑을 쌓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두려워하지 마라(요한 6, 20)

태국 상징물 순례 동행기

양혜경 마리아_WYD 전략팀 봉사자, 삼각지성당

[편집주]

세계청년대회 십자가(순례자 십자가)와 성모님 이콘은 전통에 따라, 2025년 2월부터 아시아 8 개 나라를 순례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5년 9월 태국 순례를 함께 다녀온 청년 봉사자의 글을 소개합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한국 청년 대표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요한 6,20)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태국에서 열린 가톨릭 유스 캠프 순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순례에는 심승우 마르티노 신부님, 정희용 평화방송 PD님,



페막미사 중 주제국 율동찬양

김태운 아우구스티노 WYD 정보팀 봉사자, 그리고 통역을 도와주시기 위해 태국 우돈타니교구에서부터 와주신 외방선교회 박광기 마르티노 데 포레스 신부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태국 후아힌의 살레시안 피정의 집과 인접한 Vittayalai 학교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약 350명의 청소년·청년들이 참여했으며, 35명의 성직자와 45명의 청년 봉사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주제는 “Faith Roots, Hope Moves - With You I Am. (신앙에 뿌리내리고, 희망 속에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였습니다.

순례의 첫날부터 태국 신자들의 뜨거운 신앙과 주님께 향한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미사와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첫날 미사 중에는 알아듣지 못한 채 홀로 기도하던 제게, 성가대 봉사자가 다가와 서툰 영어로 주교님의 강론을 통역해 주었습니



개막미사 후, 태국 타레 논생 교구장 카이세리 대주교님과 함께한 한국대표단 (Mons. Anthony Weradet Chaiseri, Archbishop of Thare and Nonseng.)

캐막미사 때, 순례자 신자가와 이콘을 들고 행렬하는 모습



다. 완벽하지 않은 언어였지만, 그 안에서 저는 하느님의 말씀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족하다고 주저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면,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

또한 태국에서 세계청년대회 십자가와 성모 성화를 만나 떼제 기도를 드렸을 때,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십자가에 손을 얹고 “주님, 이번 순례와 앞으로의 여정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라고 기도드립니다. 살며시 눈을 떠보았을 때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십자가가 보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응답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너는 이전에도 부족했다. 그럼에도 너를 사랑하였다.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느냐. 용기를 내어라.” 그 음성엔 제게 다시 도전할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조용한 아침 바다와 노을이 예쁜 후아
힌에서 저는 겸손과 섬김으로 함께 하는

봉사자들과 꾸밈없이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다양성을 지닌 서로를 이해하며 일치하고 있었고, 향기로운 음식과 색도 맛도 강렬한 수많은 열대과일들과 함께 쏟아지는 하느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열정이 부러운 이들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불러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공동체들이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에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만나게 될 날을 생각하니 마음이 벅칩니다.

오소서, 성령님! 서울 WYD의 성공을 위해 기도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소서. 아멘.

레우 폼간 응안야와춘록 티이 꾸룽쑤온 썽판이썹젯 나카!

“See you at WYD Seoul 2027!”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_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평소에 기도 잘 하시나요? 기도하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주님의 기도’는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제자들 간청에 따라 ‘주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셔서 ‘주님의 기도’라 합니다. 모든 기도는 하느님께 바치는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에, 이 기도는 하느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말 그대로 ‘저자 직강’(!)입니다. 이 기도는 복음 전체의 요약이자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담은 기도입니다. 전반부엔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후반부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는 기도로 구성됩니다. 이 기도처럼 먼저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이후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

도하면 가장 이상적인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하늘은 어디인가요? 어디부터 하늘인가요? 구름 위? 성층권? 태양계 밖?? 하늘이란 하느님이 계신 곳이고, 하느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하늘이며, 우주 전체가 하늘입니다. 과학자들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은하계에 대략 4000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 전체에는 10의 23승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래가 10의 20승이라고 하니, 별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되시지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 하느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언제나 계시고,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우주 전체의 창조주이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Deus semper major, 언제나 더 크신 하느님). 오늘날 일부 과학자들은 물리학적 지식에 근거해 창조주 하느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을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중고생들이 공부하며 풀이하는 시험문제 대부분이 자연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문장과 주장을 읽고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신론의 주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머리와 구조로 하느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예전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는 엄하고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엄부자모’란 말이 통용되던 사회에서 사랑과 자비란 말을 ‘아버지’와 연결시키기 쉽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엔 많이 달라졌지요. 예수님은 하느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 계시게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가장 깊은 본질이 사랑이라 알려 주십니다.(참조 1요한 4,16)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

지 다 세어 두셨다.”(마태 10,30) 우주보다 더 큰 하느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 각자의 머리카락 개수도 다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란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향함으로써, ‘지금, 여기서’ 하느님 현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시작되고, 기도로 단단해집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완성과 구원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 즉 빵의 기적이나 병자치유, 구마 행위, 죄의 용서와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심, 그리고 특히 수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 등등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구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내 성지

윤정민 마틸다

단내 마을(단천리)은 1784년 한국 교회 창설 이전부터 천주교 신앙과 이어져 온 역사 깊은 교우촌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은이 공소를 중심으로 용인, 양지터골, 이천 동산 밑, 단내와 시어골 등 여러 교우촌을 돌며 사목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단내 성지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사목 여정을 기리며 계곡과 산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5.2km의 순례 길이 있습니다. 성지 주차장에서 사무실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1845년경 신부님께서 정은 바오로의 집을 방문해 성사를 집전하신 뒤 골배마실로 향하시며 걸으셨던 길로, 오늘날 성지의 진입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성당과 소성당에는 신부님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와룡산 계곡 아래에는 두 개의 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춘추 절기에는 야외 제단에서 미사가 봉헌됩니다. 광장 뒤편 산길에 마련된 십자가의 길 14처를 묵상하며 오르면, 와룡산 정상에서 예수성심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걷다 보





면 순교자 가족이 몸을 숨기고 기도하던 ‘검은 바위’와, 박해 이후 피난 생활을 하던 굴 바위도 순례할 수 있습니다.

단내 성가정 성지는 1866년 병인박해 때 남한산성에서 순교한 정은 바오로(1804-1866)의 유해와 정양묵 베드로 순교자의 의묘가 모셔진 곳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가 함께 신앙을 증언한 이문우 성인, 조중이 성녀, 남이관 성인, 이호영 성인, 이 아가타 성녀의 묘가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깊은 가족 사랑과 신앙을 보여 준 성가정 순교자들의 뜻을 기리며, 단내 성지는 1987년 9월 15일 수원교구장 김남수 안젤로 주교의 집전으로 축성되고 성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터전은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견고, 머물 수 있는 피정의 장소이며 고요한 자연 속에서 선조들의 신앙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총의 공간입니다. ⊕

어린 시절의 동경이 신앙이 되었다!

이기연 엘리사벳_마포구청 교우회

마포구는 서울에서 한강을 가장 길게 끼고 있는 지역이다. 8.2킬로미터에 이르는 강변의 중간쯤을 보면 한강을 내려다보는 절두산 순교성지를 만나게 된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찾는 성지이지만, 이곳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신앙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다.

절두산은 1866년 병인박해로 인해 순교의 땅이 되었다.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 이곳의 이름이 잠두봉에서 '머리를 자른 산', 절두산으로 바뀌었다. 아름다움은 비극으로 덮였지만, 끝내 신앙을 놓지 않았던 침묵의 증언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진북팔단교우회 월례 미사를 마치고 성산2동 이도행 신부님과 수녀님들과 함께

내가 천주교와 교황님을 처음 의식하게 된 것은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방한하셨을 때, 당시 초등학생이던 같은 반 친구 김요한을 통해서였다. 친구들에게 교황님과 이름이 같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던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날 텔레비전 화면 속 교황님의 모습은 어린 나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모습은 유난히 따뜻하고 성스러워 보였다. 그때 품었던 막연한 감정은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공무원이 되었고, 마포구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관광업무를 하면서 절두산 성지에 대한 홍보자료를 만들게 되었고 많은 순례객들이 찾는 것을 알게 되며 어렸을 때 동경했던 교황님의 모습과 순교의 역사를 품고 있는 절두산 성지가 어느 순간 새삼 다르게 다가왔다. 그 후 직장 선배님을 대모로 모시고 세례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의 동경은 비로소 나의 신앙이 되었다.

매 주일 성당 미사에 참여하고, 직장의 교우들과 함께 매월 직장 미사를 봉헌하



지난해 서울시 직장교우회 성탄 미사를 마치고 함께한 마포구 진복팔단교우님들과 함께

고 활동하며 나는 신앙이 특별한 순간에
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
우리 마포구청 '진복팔단교우회'는 1988
년 구청 직원들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하
여 2017년 11월 교구에서 정식으로 성산
2동 본당 박준호 바오로 주임 신부님을
마포구청 교우회에 파견해 주셨고 그때
신부님께 지금의 명칭을 받아 오늘날까

지 직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신앙
을 키워오고 있다. 그 덕분에 나의 신앙
도 반복되는 일상과 업무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자라날 수 있었다.

특히, 마포구는 2027년에 열릴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앞두고, 절두산
순교 성지를 대표적인 신앙·역사 명소로
가꾸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첫

걸음으로 추진된 ‘절두산 순교성지 하늘 계단 정비공사’는 지난해 12월 개통식을 통해 새롭게 선보였다.

절두산 성지로 가는 노후화되어 빠져 덕거리고 가파른 목재 계단을 철거하고, 현무암 통석을 활용한 넓고 안정적인 계단으로 전면 정비하였다. 계단 중간에는 음각 문구를 새겨 성지의 엄숙함을 더하고, 중앙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동선을 완성했다. 이러한 일을 앞장서 추진하는 마포구청에서 큰

무하는 신앙인으로서, 이 모든 과정은 나에게 큰 자부심으로 다가왔다.

절두산의 순교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다. 그분들의 숭고한 신앙을 본받아 나도 오늘, 나의 일터에서 우리 마포구청의 진복팔단 교우들과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주민을 위해 일하는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신앙의 실천일 것이다. ⊕

지난해 4월 부활절 행사를 마치고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느냐? (루카 22, 48)

김종호 아고보 주임신부_한남동 성당

유다의 배신을 전하는 복음 말씀을 묵상 하노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깁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꼭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겨야만 했을까? 그냥 자신만 조용히 떠나면 되지 않았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유다의 마음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썩 내키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유다는 그분의 비범함을 보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 하느님 말씀에 대한 독창적 해석, 거기에 따르는 권위. 여기에 더해 유다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말이지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따랐습니다. 열두 제자의 일원이 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하지

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마음에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지? 보아하니 이분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세상을 전복시킬 계획도 없고 로마제국과 협상하여 세속적 지위를 얻을 야망도 없다.’

유다는 모든 환경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옥죄어 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다는 종교지도자들의 움직임을 감지했고 그 움직임을 곧 위협으로 다가움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많은 군중의 인기를 이용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접촉하여 자신의 세력과 힘을 합치자고 했을 겁니다. 로마제국에 항거하여 독립을 이루자는 이들도 있었고 새로운 유다



교의 분파로 당당하게 한 지위를 차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제안과 압력에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행보를 재촉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고 싶습니다. 종교지도자들과 로마의 압박에 예수님은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군사화하여 저항하거나 협상을 진행한다면 자신도 예수님 편에서 얻을 것이 있을 것이고 실패한다면 예수님 반대편으로부터 약간의 보상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쉽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라고 적에게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끼리 나누는 인사가 배신의 신호라는 것이 참 모순입니다.

저는 앞서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썩 내키지 않는 일이라 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곰곰이 그를 살펴볼수록 나 역시 유다와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 역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 아니 수없이 배반해 왔다는 것. 그것은 인정하기 싫은 쓰러린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린 마음을 부둥켜안고 있으면 서서히 어떤 희망이 올라오음을 느낍니다. 그 희망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유다도 그 손길을 끝까지 놓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

‘두쫘쿠’를 아시나요?

김도훈 라파엘 신부_사목국 직장사목팀



혹시나 아직도 ‘두쫘쿠’를 모르시는 우리 직장인 교우분이 계실까 봐 설명하자면요, ‘두쫘쿠’는 ‘두바이 쫘득 쿠키’를 줄여 부르는 이름으로, 연초 어느 날에 아직도 먹어보지 못했냐며 동기신부를 통해 강제로 영접한 디저트 음식입니다. 극에 달하는 달콤함과 독특한 식감이 일품인데요, 카다이프 면(중동의 얇은 면)과 피스타치오, 마시멜로를 활용하여 만들어 맛이 없을 수는 없고요, 거기에 ‘두바이’라는 네이밍이 주는 고급 이미지가 결합 되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 두바이 음식이 아니라 K 스타일로 재해석한 한국 음식인 것은 안 비밀입니다. 현재 품질이 일상이라 웬만한 쿠키 가게에 가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월 15일 현재 숙명여대 근방 이곳저곳 방문하여 봤으나 필자도 하나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이미 잘나가는 두쫘쿠를 더 홍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두쫘쿠’를 몰라도 구박받지 않는 시대가 금방 올 것 같아서, 그 시기가 언제쯤이 되려나 나름 재미있게 기다리는 중입니다. 전에는 ‘허니버터칩’을 모른다고 구박받으며 맛있다는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편의점에 보이면 냅다 사



고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탕후루의 노예가 되어서 저마다 늘 상 손에 쥐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지요. 디저트는 역시 ‘요아정’이라며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값나가는 제철 과일을 올려 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소비되고 있지만, 버터칩이든, 탕후르든, 요아정이든 초창기의 엄청난 열풍에 비하면, 시대의 지배자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기야, 서태지도 H.O.T.도 핑클도 소녀시대도 영원한 주인공은 없었습니다.

‘두쫘쿠’가 얼마나 오래 왕좌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행은 결국 돌게 되어있지요. 영원한 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상 영원할 거라 믿고 싶어서 사랑했던 것들,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처음의 그 사랑이 무색할 정도로 차갑게 식고 쳐다도 안 보는 것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자는 말이 아니라 정작, 진정으로 우리가 쫓고 알아야 하는 하느님은 너무 저쪽 구석에 쳐 박아두면서 세상에서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들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콩깍지가 단단히 씌워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설마 제 말을 ‘두쫘쿠’ 불매 운동으로 여기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무맛있는 ‘두쫘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느님 아래 ‘두쫘쿠’고, 나도 너도 우리도 하느님 안에서 그 존재가 의미를 찾음을 기억합시다. 은총 가득한 사순시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기가 되기를 축언하며 마칩니다. ⊕

멈추어서야 보이는 소중한 것

김요한 세례자 요한 신부_강북삼성병원 원목실장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품을 받고 본당 직무만 맡았던 저는, 그러한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공감하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형제님과의 만남이 큰 울림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라파엘 형제님을 처음 뵈었던 때는 병원으로 발령받은 지 2주 정도 지난 3월 초였습니다. 형제님은 고통으로 힘겨워하면서도, 제가 방문할 때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형제님이 앓고 있던 병은 희귀암이었고, 회복할 기미 없이, 병세는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형제님은 젊어서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고생하며 많은 고비들을 넘기고, 이제야 체계가 잡혀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



런데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고생하며 이룬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더 아프고 안타까운 환자들의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마주하며 말씀을 들어드리면서도, 기도드리겠다는 말씀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님은 담당의로부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세가 꾸준히 안 좋아지고 있고,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2-3개월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화나고, 우울하셨을까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찾아온 이들을 보고,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들 앞에서 울음은커녕 약한 모습도 보인 적 없었는데,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분이 처음으로 아들에게 형제님의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형제님의 병세가 심각하며, 몇 개월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전망을요. 이야기를 듣던 이들은 말없이 형제님을 꼭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묵묵히 형제님을 위로했습니다. 형제님은 그러한 아들의 모습에 큰 감동과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철없고 어리게만 보여 걱정이었던 아들의, 듬직하고 의젓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분이셨습니다. 병을 얻기 전까지, 아내분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표현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따뜻한 위로와 성장을 보시고, 처음으로 참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기를 참 잘했다



고, 속이 후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 병실, 바로 맞은 편에 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형제님과 연배도 비슷하고, 증상도 비슷했습니다. 죽음에 가까워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형제님이 보시기에 그 환자분의 표정이, 참 밝더군요.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보셨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표정이 밝냐고요. 그런데 그 환자분은, 자신이 지금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하는 일도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멈추어서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할 때는 못하던 대화도 하고, 소중한 추억들, 기억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형제님은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드릴 수도 없었지만, 이들의 위로가 계기가 되어 그 환자분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평소에 전할 수 없던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형제님과의 만남을 통해 앞만 보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고, 멈추어서야 보이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치유하는 돌봄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공감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언젠가 상처받은 환자분들에게 도움과 위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

송정섭 시몬 신부_사회교정사목위원회

교정 사목은 주로 수용자와 그 가족을 만나지만, 반대로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만나며 물적, 영적 지원을 합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한 달에 한 번, 교정 사목 센터 경당에 모여 미사를 봉헌하고 생활 나눔을 함께합니다. 자조 모임의 이름은 ‘해밀’(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입니다.

해밀 모임은 200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해밀 가족들은 범죄로 인하여 사랑하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에 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을 홀로 견뎌내야 했고, 사건 현장 뒷정리를 직접 하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해밀 모임은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임에 오시는 한 자매님은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매님은 하시던 청소 일도 그만두셨고, 집에 있던 성모상을 던져버리려 하실 정도로 분노와 상처 속에 사셨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견뎌내시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매일 새벽 미사에 가기 시작하셨고, 우연히 해밀 모임을 알게 되셨습니다. 해밀에서는 서로가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여기서만큼은 함께 울며 억울하고 맺힌 마음을 마음껏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언제부터인가 매년 새롭게 피고 지는 꽃의 모습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합니다. 지금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다른 가족들 역시 사무치는 그리움이 가득하지만, 언젠가 보게 될 맑게 갠 하늘을 바라면서, 서로를 보듬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매님을 뵈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마음에 한 번 생긴 분노와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은, 잊지는 않되 그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파괴적인 힘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모든 형제들』, 251항) 교회

가 할 일은 그분들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을 함께 모아 드리는 일, 그 모임의 울타리가 되는 일, 여전히 하느님의 품 안에 있음을 알려드리는 일입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해자 가족분들, 우리 같이 만나서 얘기해요. 서로 위로하며 당당해집시다.” ⊕



사회교정시독위원회

‘해밀’ 모임에서는 범지로 가족을 잃은 피해 유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02-921-5093)



어농성지

윤정민 마틸다

어농성지는 ‘농사짓기에 알맞은 땅’이라는 뜻을 지닌 곳으로, 박해 시대 교우들이 숨어들어와 농사를 지으며 신앙을 위해 생을 바친 순교자의 거룩한 터전이자, 한국 교회의 시작을 증언하는 묘역입니다.

이곳은 조선에 첫 사제로 입국한 주문모(야고보) 신부와, 을묘박해(1795년) 순교자 3위, 신유박해(1801년) 순교자 14위를 현양하는 성지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에 최초로 성직자를 모시기 위해 중국을 세 차례나 오갔던 조선 교회의 밀사 윤유

일 바오로(1760-1795)와 그 일가족의 묘가 있습니다. 윤유일과 그 가족은 모두 신앙을 증거하다 순교했으며, 그중 윤유일·윤유오·윤점혜·윤운혜·정광수는 2014년 8월 16일 광화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습니다.

1987년 김남수 안젤로 주교에 의해 축복된 어농성지는 윤유일 일가 묘소를 중심으로 성지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1999년에는 순교자 묘역에 예수상과 십자가의 길 14처를 조성하고, 2002년에는





사제관과 성당(강당)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해 8월 13일, 수원교구장 최덕기 바오로 주교는 ‘을묘·신유박해 순교자 현양성지’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2012년 7월 5일 이용훈 마티아 주교는 어농성지를 ‘한국 천주교회 순교자들의 열이 살아 있는 거룩한 성지임’을 공식 문서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순교자 묘역과 더불어 순례자들의 발자취를 목상하며 걸을 수 있는 여러 순례

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통 한옥의 분위기를 살려 지어진 성당 안에는 순교 복자의 인물화가 모셔져 있으며, 성당 뒤편 언덕에는 순교 당시 사용되었던 형구와 형장의 모습을 전시해 순교자들이 겪었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현재 이곳은 젊은이들이 순교 정신을 배우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청소년, 청년 성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질문이 기도가 될 때

강혁준 아우구스티노 신부_사목국 직장사목팀



요즘 세상은 무엇인가를 전하는 속도나 문제 상황을 풀어가는 능력이 인공지능과 더불어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편리한 문명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바깥이 편해질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분주해지는 어려움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자주 들 습니다. “휴대폰은 손에 있는데, 마음은 늘 ‘놓친 것’이 있는 듯 불안하다.”문제는 편리함이 아니라, 마음까지 거기에 전부 맡겨 버릴 때 생깁니다. 기술과 유행은 늘 새로움을 주지만, 그 새로운 자체는 우리를 붙잡아 주는 ‘근거’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매년 새 모델이 나오지만, 마음의 중심까지 ‘업데이트’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새 제품처럼 ‘신형’이 될 수 없고, 유행처럼 ‘구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오래된 것도 새것도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나도 여전히 같은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끝내 의지하고 기대어야 할 곳은 ‘더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한결



같은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잡힐 때, 변화는 우리를 흔드는 파도가 아니라 건너가게 하는 바람이 됩니다. 인간은 흔들릴 때 질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였지?”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덜 흔들릴까?” “하느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갈등에서 시작된 이런 질문은 신앙의 눈이 열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이 반갑습니다. 질문은 신앙이 꺼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려는 신호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질문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떤 질문은 논쟁으로 끝나지만, 어떤 질문은 기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흐름이 생긴 그 순간부터 삶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방향 찾기’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서에는 그 전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이를 만납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스승님, 이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요한 9,1-2) 고통을 보면 우리는 원인을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의 틀을 단번에 뒤집으십니다.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려는 것이다.”(요한 9,3) 누구 탓인지 찾는 질문을 멈추게 하시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었습

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그는 보게 됩니다(요한 9,6-7). 하느님의 영광은 멀리 있는 장식이 아니라, 삶의 막힌 길이 열리고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느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대목이 제 마음에 오래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질문을 던지되, 자꾸 ‘원인’에만 매달립니다.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나?” “누구 책임이지?” 물론 책임을 따져야 할 일도 있고, 원인을 살피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만 붙잡으면 마음은 그 자리에서 굳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기도로 바꾸십니다. “누구 탓인가”에서 “여기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소서”로, “정리해 주십시오”에서 “이끌어 주십시오”로.

소방사목 현장에서는 기도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실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마음의 고통은

여전히 “참으면 된다”는 말로 덮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몸의 충격은 의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의 핵심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안전’에서 비롯된 예방입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지금의 떨림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는 것. 이런 작은 안전이 보살핌으로 쌓이면 마음은 다시 균형을 찾을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묻게 합니다. “이 고통을 누가 만들었는가”만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살리는 길로 이끄는가”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 이 일이 해결될까요?”에서 “주님, 이 곤란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열어 주소서”로, “주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있습니까?”에서 “주님, 이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일이 드러나게 하소서”로, 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결론을 내리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믿기에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으니 뭔가 표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늘에서 ‘접수 완료’ 도장이 찍혀서 내려왔으면? 그런데 신앙의 위로는 도장찍는 소리보다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못알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버틸 수 있게 바뀌고,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려 있는 그 과정 자체가 은총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조언대로 실로암을 향했던 맹인의 그 한 걸음처럼, 하느님은 종종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이끌리기 위해 하느님을 향한 질문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그 질문이 논쟁의 칼이 아니라 기도의 문이 되고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청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막혔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예수께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누구 탓을 찾지



은평소방서

전에, 여기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던지는 질문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말로 머물지 않게 하소서. 제가 붙잡고 싶은 것은 저의 논리나 자존심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질문이 당신께 닿지 못하면, 저는 결국 흔들리는 것들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제 질문을 당신께 나아가는 길로 바꾸어 주시고 어떤 곤란함에서도 마침내 당신의 뜻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이 저와 이웃을 살리는 길로 열리게 하소서. 아멘. ⊕

루르드

루르드

심연선 소화데레사_성지순례 전문 여행 가이드

많은 성지를 순례하지만 특별히 마음이 더 가는 곳이 있습니다. 루르드가 바로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한번 순례하면 다음에 또 가보고 싶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신자들은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루르드는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강원도의 어느 깊은 산 속 작은 시장 마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곳이 이제는 전 세계의 신자들이 기도를 하러, 기적의 은총을 청하러 모여들어 프랑스에서 파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호텔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루르드를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 역에서 고속열차인



루르드 성지 성당



TGV를 타고 루르드 역까지 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파리를 경유하면 다른 곳도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 루르드에서 가까운 툴루즈(Toulouse) 공항으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동해서, 기차를 타고 루르드 역으로 가곤 하였습니다.

작은 루르드 역에서 성지까지는 약 1.7km 정도 되는데 보통 걸음으로 20분이면 도착합니다.

루르드 성모님을 뵈려 마음에 발걸음이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피레네 산맥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모여 힘차게 흐르는 가브 강을 만나면 이제 성지에 다 온 것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성당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성당을 바라보며 오른쪽으로 마사비엘 동굴이 있습니다. 늘 이곳에 제일 먼저 갑니다.

성지의 문을 여는 시간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 이 동굴은 기도와 미사와 순례로

촛촛히 차 있습니다. 촉촉한 습기를 머금은 동굴에 홀연히 서 있는 성모상을 바라보니 마치 내가 소녀 벨라뎃다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곳까지 불러주신 성모 어머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바로 옆에 있는 침수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물의 예식으로 바뀌었지만 그 감동은 동일합니다. 자비를 들여 머무르면서 환자들의 순례를 돕고 있는 봉사자들의 모습 또한 감동 그 자체입니다. 마사비엘 동굴 바로 옆, 위에는 로사리오 성당, 동굴 성당,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성당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성당과 경당에서도 순례자들의 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지의 내용 자체도 감동이지만 많은 신자들의 기도와 미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군데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짙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루르드 성지에는 성주간부터 11월 1일 전까지 30여 명의 신부님들이 상주하시면서 매일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성지 광장 지하에는 약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



위: 마사비엘 동굴 아래: 비오 10세 성당





야간 로사리오 기도



루르드의 성모님

는 비오 10세 성당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는 매일 오후에 성체강복 시간이 있으며,

6개 국어로 진행되는 국제 미사가 있습니
다. 비오 10세 성당 근처에는 루르드 성지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보면 루르드의 지형 모델과 루르드 성모 발현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잘 진열되어 있습니다. 성지 옆 동산에는 십자가의 길이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기도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루르드 성지에서는 물을 따로 사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일같이 솟아나는 기적의 물! 맛도 참 좋습니다. 성지 주변에서 튼튼한 물병을 파는데 꼭 한국 약수를 받아가는 물통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른 아침에 물을 뜨다 보면 한국 약수터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지를 벗어나면 벨라멧다 가족들이 살았던 생가와 잠시 머물렀던 동굴집도 가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가난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루르드 성지의 하이лай트는 야간 로사리오 기도입니다. 성지에 온 순례자들

이 촛불을 들고 행렬을 이루어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인지 가톨릭 신자임이 너무도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이때 사용한 초는 마사비엘 동굴 근처에 마련되어 있는 초를 위한 공간에 꽂아 놓으면 됩니다. 지금 기도를 마쳤지만 계속 타오르는 촛불과 같이 깨어 있으며 기도하겠다고 다짐을 해 봅니다.

시내 가는 길에 있는 Pizzeria Da Marco 라는 피자집도 한번 가보세요. 피자 맛집입니다.

그리고 뿌아그라(거위 간) 요리가 유명하다고 하니, 맛 좋은 프랑스 와인과 곁들여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전히 성모 어머니의 품에 품 안겨 기도할 수 있는 루르드 성지! 외갓집이 생각나듯 오늘도 그리워집니다. ⊕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마르 3, 13)

박민정 아네스_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교우회

“따르릉~ 따르릉~”

좀처럼 울리지 않던 오전, 전화벨이 울렸다. 반자마자 들려온 첫마디는 “아네스 자매님이십니까?” 직장에선 좀처럼 듣기 힘든 호칭으로 나를 찾는다. 그는 자신을 임 프란치스코 형제라고 소개하며 우리 직장 자매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함께 할 사람을 찾는다며 내 의향을 물었다. 나는 망설임 하나 없이 “예, 언제부터 하나요?”라는 물음으로 답했다.

평소의 나였다면 달랐을 것이다. 누가 함께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주 몇 회인지, 어느 시간대에 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여러 가지를 물었을 테고, 그래도 모자라 “좀 생각해 보고 답을 드려도 될까요?”라며 시간을 달라고 했을 거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어둠 속에 주저앉아 어쩔 줄을 몰랐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이 길이 맞는지, 유학길에 올라야 하는지, 박사학위에 대한 생각을 접고 이직해야 하는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집을 나와 독립해야 하는지. 국외대학의 입학 결과 통지와 외국계 기업의 입사 통보까지 한꺼번에 받아들인뒤, 어느 것에도 우선순위를 매기지 못한 채 감정만 요동치고 있었다.

심지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인지, 그 ‘하늘’은 도대체 어디인지,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긴 하신 지’까지 흔들리던 시기였다. 존재 전체가 혼란과 어둠이던 그 시기, 변화와 결단이 절실했다. 그래서였을까. 더 묻지도, 재어 볼 여유도 없이 나는 그 전화에 “예, 언제부터 하나요?”라고 즉답했다. 마치 저 멀리 하늘로 사라져 가던 연의 연줄을 가까스로 붙잡은 순간 같았다.

그렇게 직장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다. 입사 지원서 종교란에 적어 둔 ‘천주교’라는 세 글자 -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로 타인이 알 수 없지만- 가 인연이 되어, 일면식도 없던 한 형제님의 전화를 통해 성경 공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만남은 형제님들과의 성경 묵상 모임으로 이어졌고, 이렇게 좋은 것을 나만 누리기 아까워 용기를 내어 함께 성경 공부하던 자매들에게 연락해서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 점심시간 자매 묵상 모임을 시작했다.

KIST_2025년 교우회 미사



형제님과의 모임은 형제님들께서 퇴직하신 뒤에도 작년 말까지 이어졌고, 자매 묵상 모임은 2004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계속되고 있다. 처음에는 주로 네 복음서와 이에 맞닿은 유광수 신부님의 묵상 글을 함께 읽으며 나눔을 이어갔고, 이제는 ‘성경 읽기 모임’으로 이름을 바꾸어 같은 시간에 모여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 삶을 다듬고 나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겪은 아픔과 절망, 기쁨과 고민을 나누며 ‘나’와 ‘너’를 넘어 ‘우리’가 되었고, 신앙과 생활이 따로국밥 되기 쉬운 일터에서 한 주의 가운데인 수요일 점심마다 주님을 되새기며 삶의 리듬을 조금씩 조율할 수 있었다. 직장에서 전공도, 역할도, 나이도 제각각이지만 ‘자매’라는 이름으로 20년이 넘도록 이 시간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늘 우리의 중심에 계셨기에 가능한 은총이다.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마르3,13)

저희를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21)

김종호 아고보 주임신부_한남동 성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대부분의 사도들은 도망쳤습니다. 사도단은 혼란에 빠졌고 무너졌습니다. 유다는 배신했고, 다른 사도들 역시 무력했습니다. 으뜸 사도라고 불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바수어진 마음을 추릴 새 없이 그들은 쫓기고 있습니다. 소위 예수 잔당으로서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색출하여 제거할 대상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사도들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수습해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승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문을 모두 닫아걸고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상은 모두가 자책하고 있었겠지요. 무기력한 침묵 이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 가운데 섭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의아함과 충격이 동시에 엄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도들에게 건네신 말씀입니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유명인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투영된 환영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혼란한 순간이 지나갑니다. 결국,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사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달려가 예수님을 끌어안고 싶은 마음과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달아나 숨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을 겁니다.

“평화” 이런 상황에 평화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참 모순적입니다. 사도들이 평화로울 수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위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길이 머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도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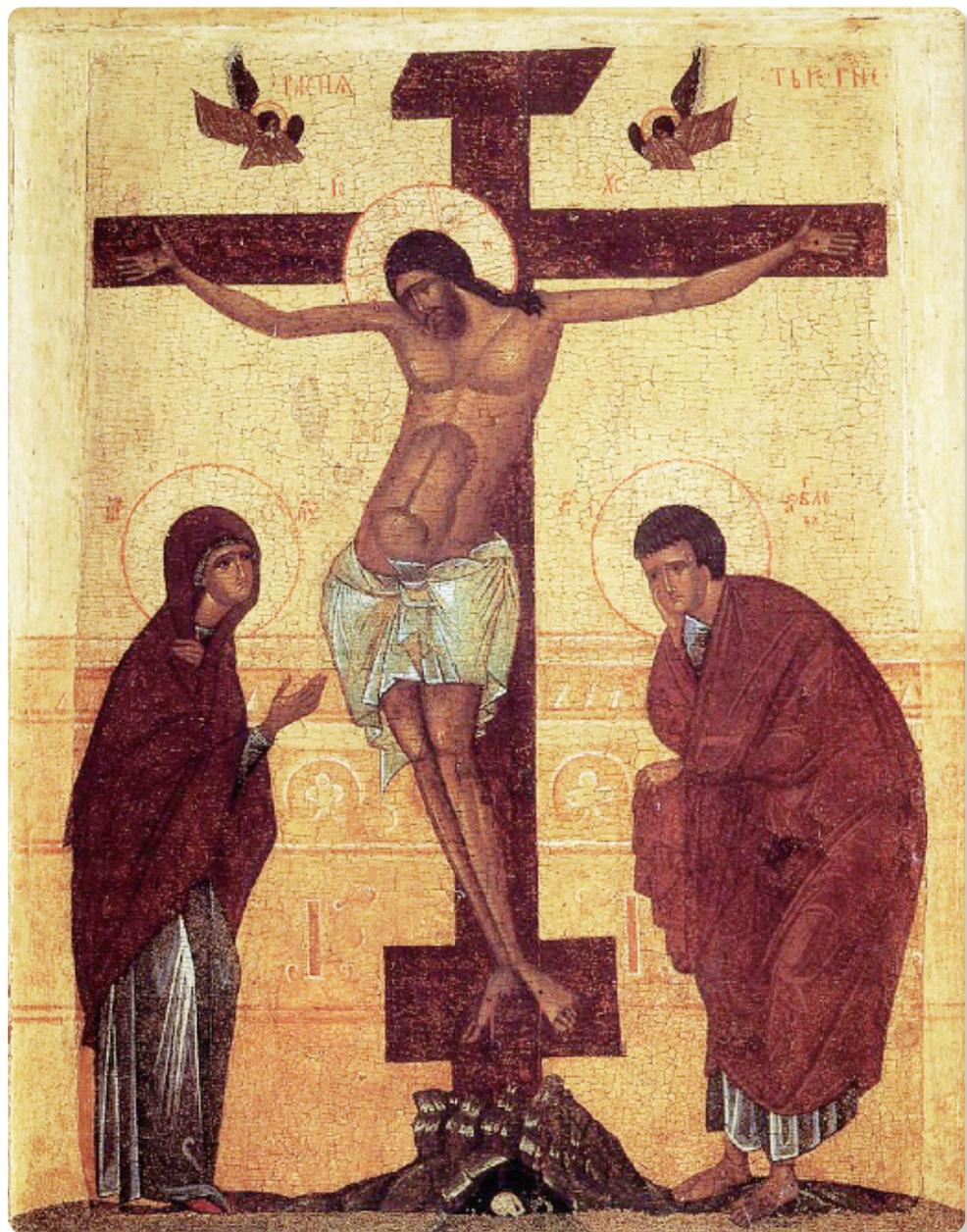
예비신자 교리를 하면서 성당에 다니게 된 이유를 물으면 많은 분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기존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서 평화를 얻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어떤 내적인 번민과 스트레스도 없는 평화, 주변 사람, 상황 모두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는 평화, 다툼이 없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 이런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혼란 속의 평화, 다툼 속의 평화, 두려움 속의 평화를 건네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입으면 참 편안합니다. 일단 마음과 주변이 평화롭지 않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모순적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사제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 도망간 곳에 평화는 없었습니다. 불화를 수면 아래 가라앉히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백날 떠들어도 결국 더 큰 불화가 솟구쳐 오릅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상황인데 내 마음이 요술을 부리듯 불화를 꺼냅니다. 잊었던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고 없는 다툼을 만들어 냅니다. 때로는 내가 진정 평화를 원하긴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뇌어 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평화로움을 추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평화를 건네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기로 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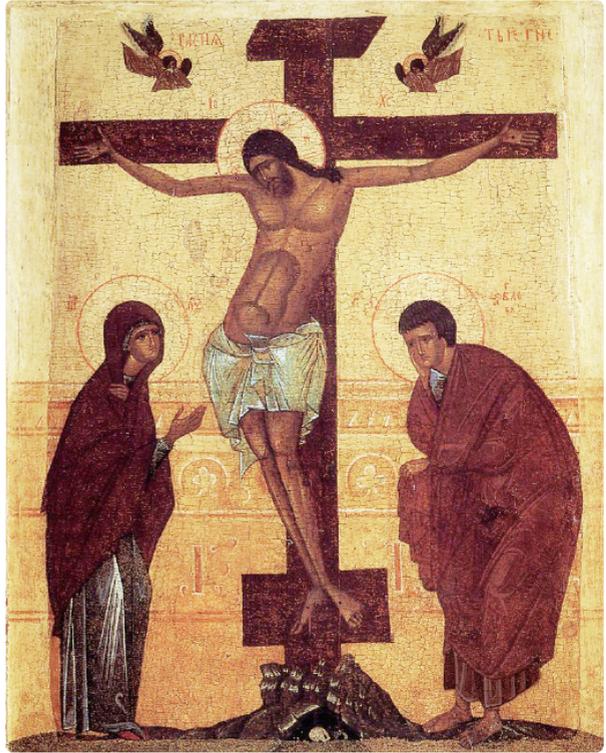
틀린그림 3곳을 찾은 후
사진을 찍어주세요.

3월 31일(수)까지
QR코드를 통해
사진을 보내주시면
20명을 추천하여
스타벅스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휴대폰 뒷자리)

2585, 2998, 7822, 6875
5176, 3163, 6469, 5596
5967, 5258, 6469, 9865
1827, 5290, 3403, 5178
8402, 8314, 5854, 5590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그림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사도 요한, 그리고 두 천사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가운데 고개 숙이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통과 하느님께 대한 순종을 함께 드러냅니다. 드러난 근육과 허리에 두른 흰 천은 죄 없으심과 존엄함,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왼편의 성모 마리아는 한 손

을 가슴에, 다른 한 손을 예수님께 들어 올린 채 아들을 잃은 슬픔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뺨에 손을 대고 깊은 슬픔에 잠긴 모습으로, 스승을 향한 사랑과 애통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머리 위의 두 천사와 글귀는 이 사건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임을 말해 주며, 십자가 아래의 해골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이는 아담으로 시작된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면서

동시에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나무로 이해됩니다.

이 작품은 비잔틴 양식을 따른 동방교회 성화(이콘화)로 사실적 묘사보다 영적인 상징성과 신학적 의미를 중시합니다. 또한 평면적 구도와 황금 배경, 상징적으로 단순화된 인물 표현이 특징입니다. 14세기말, 15세기 초에 그려진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모스크바 안드로니코프 수도원 경내의 루블레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2026년 직장공동체 견진교리반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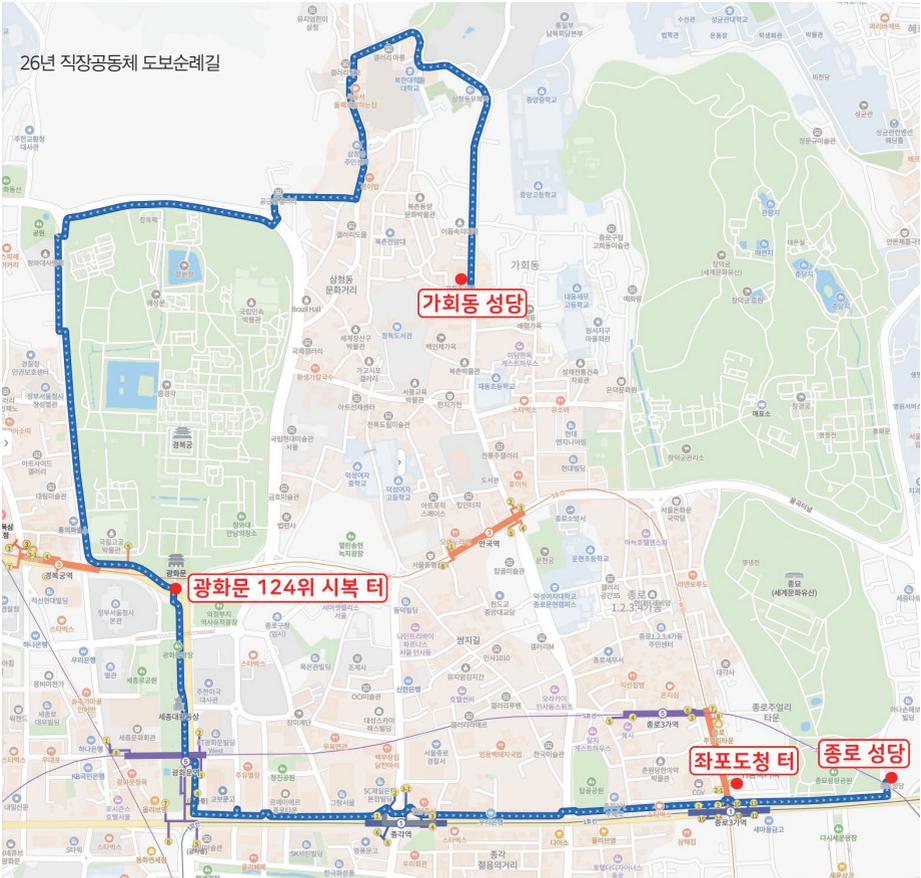
- 교리기간** 4.16(목) ~ 5.14(목),
매주 목 19:30~21:00 (총 5회)
- 교리장소** 가톨릭회관 205-2호
- 교 육 비** 30,000원
(교재대금, 사진비, 장소사용료, 꽃사지 등)
- 접수마감** 3.31(화) 17:00
- 모집인원** 50명
- 건진성사** 2025. 5. 16(토) 18:00, 파밀리아채플

직장공동체 도보 순례

- 일시** 4.18(토) 9:30~14:00
- 장소** 가회동성당 → 광화문 124위 시복 터
→ 좌포도청 터 → 종로성당
- 회비** 15,000원
- 인원** 선착순 100명

★문의 ☎ 02-727-2078, 010-7354-2078

 **gikjang2562**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기도문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초대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당신께 맡겨 드리오니,
온 세상 젊은이들이 교회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친교와 일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미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님,
“용기를 내어라.” 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온 세상 모든 이가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한 승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신 성령님,
당신의 놀라운 손길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으니,
한국 순교 성인들의 믿음이 저희 가슴에도 타올라
평화와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세계청년대회의 순례 여정을 통해
저희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찾으며,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걷는 시노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자비와 평화의 모후이시여,
-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주보성인들이여,
- ◎ 모든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사랑이
있는곳에
희망이
있다

2403 유당 기쁨



김정순, 안필경, 최가나, 임은영, 임은희, 서은희



진주교서울대교구 직장시목팀 www.catholicworkers.or.kr

(04537)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 전화 02-727-2078 | 팩스 02-753-3792 | E-mail gikjang@seoul.catholic.or.kr